

일본 대재앙 8.8 강진·10m 쓰나미

뉴질랜드 지진의 1400배 규모... 주택 수천채 잠기고 사상자 속출



쓰나미가 삼킨 일본 열도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대규모 강진 뒤에 이어진 쓰나미가 센다이 시내 건물과 도로를 덮쳤고, 시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정전·통신두절 대혼란 신칸센 운행·원전 가동 중단

11일 오후 2시 46분께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 이후 태평양 연안을 초대형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정유공장 화재와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는 등 일본 열도가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2·3·14면>

AP와 교도통신, NHK방송 등에 따르면 지진의 진원은 도쿄(東京)에서 북동쪽으로 243마일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9로 발표했다가 8.8로 수정했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8.8라고 밝혔다. 이날 지진의 규모는

일본에서 1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뉴질랜드 지진의 1400배 규모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지난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규모는 7.2였으며, 지난 1923년 9월 무려 14만여명의 사망자를 낸 간토 대지진은 7.8이었다.

기상청은 오후 3시께 미야기(宮城)현 연안에 최고 6m의 쓰나미가 밀려 올 수 있다고 대형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가 이후 이와테, 미야기, 아오모리는 물론 도쿄 부근인 이바라키(茨城)현 연안에 최고 10m 높이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수 있다고 추가 경고했다.

특히 센다이 지역의 경우 해안지역 주택 등이 역류하는 바닷물에 휩쓸리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등에서도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선박과 차량, 가옥이 휩쓸렸으며, 도쿄에서 동북부 도심을 잇는 신칸센의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오후 7시 현재 30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실종되는 한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전과 통신·교통 불통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는 데다 붕괴건물이 많아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진과 쓰나미로 일부 원자력 발전소와 정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고, 주요 철강공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업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호쿠리쿠 전력은 지진 발생 이후 일본 북부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의 3개 원자로를 자동으로 가동 중단시켰고, 코스모 석유의 지바 공



일본 지진 발생

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바현의 JFE홀딩스 철강공장에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JX 니폰 오일 에너지는 센다이와 가시카, 니기시 등 3곳의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주요 산업시설의 피해로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전 각료에게 부처별로 지진과 쓰나미 피해 축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방위성도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오후 4시 10분께 전 각료를 소집해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효된 미야기(宮城)현에 해상 자위대의 모든 함정을 급파했으며, 지진 피해 파악을 위해 8대의 군용기를 배치하고 총리 산하에 위기관리 센터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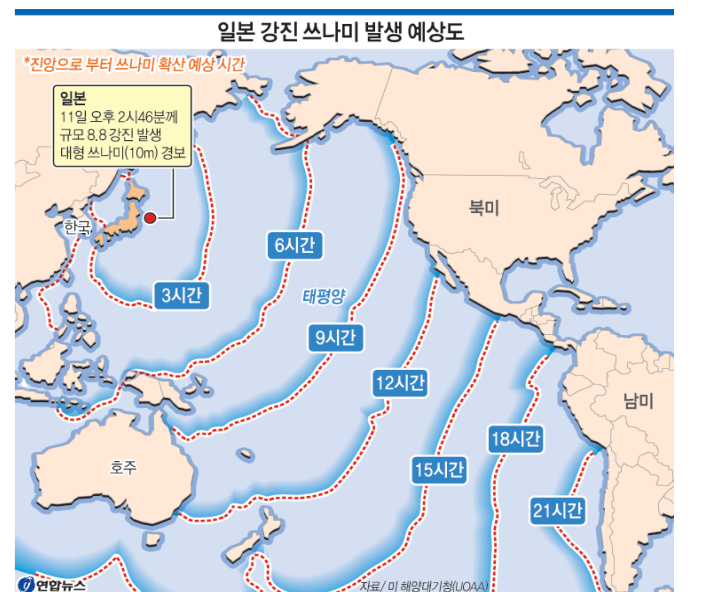
쓰나미 경보, 태평양 모든 연안국가로 확대

일본에서 11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태평양 전체 연안국가들에 대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날 일본 동북부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를 호주, 남미 등을 포함한 사실상 태평양 전역에 대해 확대 발령했다. 앞서 하와이의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일본과 러시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하와이, 괌 등 태평양 연안의 섬에서도 쓰나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일본의 강력한 지진 발생 이후 쿠릴 열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필리핀은 이날 일본 지진 발발 이후 동부 해안의 19개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상향했다.

대만도 동부와 북동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쓰나미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日에 긴급구조대 파견키로

외교통상부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 119 구조단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중앙 119 구조단 40명을 비상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주일대사관과 주센다이총영사관은 비상대책반을 설치했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는 우리 국민 약 91만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센다이 주변에는 여행객을 포함해 약 1만여명의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민 피해는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피해 현황이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

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에 나섰다. 이 상황실은 도로, 항공, 철도, 수송, 주택, 수자원, 해양 등 7개 상황방으로 나뉘어 국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일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강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